

“시민에게 친절한 경찰상 강조”

제56대 김귀찬 포천경찰서장 취임식에서



7월4일 포천경찰서에 김귀찬 총경(사진)이 제56대 포천경찰서장으로 취임해 포천시 치안을 책임지게 됐다.

신임 김 서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3회로 1994년7월 경정특례로 경찰에 입문한 뒤 구미경찰서 수사과장,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대구형 수사과장, 문경경찰서장, 경찰청 장비과장 등을 역

임했다.

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경찰 ▶뚝뚝한 경찰 ▶민중친화적 경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한 경찰’ ▶원활한 의사소통 문화 정착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것 등 여섯 가지 사항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포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포천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서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따르는 직원들이 많으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등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봉사부문 연효숙·훌륭한 어머니상 이용옥

제12회 포천시여성상 수상자



포천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화목한 가정의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정하는 ‘제12회 포천시 여성상’을 시상했다.

7월3일 ‘2007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진 제12회 포천시 여성상 수상자는 봉사부문 연효숙(소흘읍 초가밭리·사진 좌) 씨와 훌륭한 어머니상 이용옥(소흘읍 이동교리·사진 우)씨 등이다.

봉사부문 수상자 연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사업하는 남편을 지혜롭게 내조하면서 3

녀를 건전하게 키웠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어머니회와 부녀의용소방대원 활동을 거쳐 적십자솔로부봉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평소 뜻한 바대로 불우한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훌륭한 어머니상 부문 이씨는 1957년 결혼당시 6.25전쟁으로 남북 단절의 부재로 홀로 생활하는 형님을 모시고 어려운 가정형편 중에도 3남5녀를 두고 다복하게 살던 중 1971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9명이나 되는 가족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임박한 어려움에 맞서 온갖 일을 하면서 형님을 모시고 8남매를 모두 교육시키는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룬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광호 포천시 재향군인회장 대통령 표창

3만여 회원의 복리증진과 향군발전에 공헌

포천시 재향군인회 이광호 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1994년12월27일 종신회원 가입이후 2000년2월10일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취임 후 3만여 회원의 복리증진과 향군 발전에 공헌한 유공을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보계도활동과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조직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재입간 중 향군중신회원 1천200여명 가입, 각 읍면동회의 조직 및 지원활동으로 유대를 강화해 왔다.

또 2004년5월30일 향군청년단을 창설해 재난복구 및 지역사회 긴급

사상 발생시 향군기동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군여성회의 창설활동으로 년간 20여회 지역사회봉사 환경정화 및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회장은 향군산악회 운영으로 지역내 산악행군시 등산로 청소 및 쓰레기 줍기, 월1회 포천시 지역 담당구역 청소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 서 왔으며, 특히 매년 6.25전쟁기념식을 실시해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위로연을 겸한 대접으로 잊혀져 가는 6.25전쟁의 비극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

또 북한 핵 조기 폐지 및 전시작전권 조기회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전국에서 1등을 하였으며 학생병영체험으로 매년 400여명의 중학생을 군부대 견학으로 국가관과 군장비 현대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학생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안보강연으로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하지 않은 일깨워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에세이

빗물 같은 눈물

오락가락하는 빗줄기가 그치긴 했지만 후덥지근한 습도의 불쾌지수 때문에 공연한 일에도 짜증부터 난다.

날씨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캄보디아 항공기 사고로 너무도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기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한(恨) 덩어리의 무덤을 만들었다.

어찌 그럴 수가... 무엇으로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상받을 수 있던 말인가?

천상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했던가? 왜 데려가셨는지... 따지고 고함이라고 지르고 싶다.

어이없는 가족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울고 통곡하는 유가족들의 한없는 고통의 오열이 하늘에 닿았을텐데...

울창한 밀밭 숲에서 기적이라고 믿어졌으면 작은 여객기 추락을 살포시 받아주어 살려 줄 수도 있었을텐데...

아까운 인명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이유를 밝혀 무고한 죽음 앞에 죄를 빌어야 하지만 가버린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가없고 안타까운 고인들께 천상에서의 명복을 빌고 또 빌어본다. 그래도 온 국민이 동계올림픽 유치장소로 평창에 가는 기때 다 같은 한마음이었는데 그 또한 수포로 돌아갔으니 상처만 아픔에 고춧가루 뿌린 격이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의 하나같은 열원은 온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건만 허무하게 깨져버린 꿈이 눈물 바다를 이룬다.

작은 힘도 보탬 수 없었던 마음도 이처럼 쓰리고 아픈데 그 아픔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 평강이 승리했더라면 대신 주민들의 신경전으로 온 국민이 피곤했는데 시원하게 씻어줄 냉각수 역할을 특목한 했을 텐데...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열정은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비뚤음을 남김 줄이야...

국력의 강한 힘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화 시대에 힘없는 작은 나라인가? 그래도 선조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귀한 목숨 바쳐가며 지켜왔는데.

연이은 슬픈 일들로 나약해지고 있다. 아픔에서 치유의 길로 가자면 다가올 대신에서 올바른 리더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세우지 말아야 한다. 큰 인물은 하늘이 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인물이 배출되었으면... 큰 피해 없이 곱게 지나가는 장마가 되었으면 그나마 고마운 마음이다.

비 피해로 마음과 몸을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오늘도 마음속 기도로 하루를 보낸다.



윤순옥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⑭

좋아하는 선수의 기록에 감동하는 야구팬

150킬로미터 야구공의 속도를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느끼는 감각속도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대부분 눈 깜짝 할 사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의 회전은 속도와 기술에 따라 나차가 큰 커브나 변화구를 만들게 된다. 타자를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홈런을 맞아 무너지기도 한다.

이 공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판단력과 손발력을 필요로 하고 공에 대한 집중력 역시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습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선수를 비롯하여 일본, 메이저리그의 모든 스타들의 손은 그들의 자신감과 많은 연습을 굳은살로 표현한다. 많은 연습은 곧 바로 성적과 기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휴일에도 남모르게 연습을 하는 프로선수들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요즘 야구계에는 많은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3살의 배리본즈는 헝크아론의 홈런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양준혁 선수는 2천 안타 기록, 양키즈의 로저클레멘스가 투수로써의 350승 고지의 기록을 새롭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철저히 지키며 나이러는 자연의 흐름을 최대한 늦추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본즈의 모습과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도 화이트 중독자라는 애기를 들을 정도로 몸 만들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프랑코는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당연히 운동 선수로서 환갑이 지난 나이로 취급되는 40살에 기록을 경신하길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기록에 도전하고 만들어 가는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팬들의

사랑과 성원은 더욱더 높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새로운 기록은 수많은 밤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에서 팬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성 선물도 좋겠지만 경기를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기록을 세워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감동스러운 만족이벤트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가을에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지 기대되는 2007년 7월의 오늘입니다.



장승호

에세이

오늘밤 유난히 보고 싶은 그녀들

대지가 타들어 가는 듯한 때가 온 듯이 가슴을 부리고 있다. "축축이 맑은 비가 내리야 할텐데..." 하는 한숨소리가 여기 저기서 요동친다.

구름한점 없는 파란하늘.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받는 아스팔트의 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

차츰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니 지난 추억들이 실낱처럼 물가의 물안개 피어오르듯 하나둘 떠오른다.

긴긴 하루의 해가 지고 별들 총총 내려앉은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침 또 다른 태양이 떠올라 아침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파르르 몸을 떨듯 열여섯 풋풋한 사춘기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을 불혹의 나이가 되었음을 말해 주는 듯 싶다.

안개 속을 헤메이듯 현실과 먼 미래를 설계하던 꿈 많은 여고시절. 그 풋풋하던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개만 밤 벌들이 쏟아져 내리고 코스모스 흐드러지게 핀 길가에 두 팔을 벌리고 누워 누워 정답던 이야기들 "넌 무엇이 될래" 라고 물으면 난 저 길가에 핀 코스모스 같은 여인이 될게야.

"난 순백의 하얀 안개꽃이 좋

아" 하던 수많은 말들이 나의 귓가를 오늘밤 유난히 간지럽힌다. "까르르" 숨 넘어갈듯 웃던 아무런 나의 여고 친구들.. 지금은 다들 행복할까? 이두고 주부로서 열심히 살고 있겠지... 오늘밤 유난히 그녀들이 보고 싶고 이제는 만나서 옛 추억을 상기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개빈밤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김은숙



‘三才’는 ‘우주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을 통 털어 이르는 말’

말했던 것이다. 물론 천시를 잘 타고나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천시를 잘 탔다 해도 입지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일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人事)이기 때문이다. 인화(人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화합(和合)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삼재(三才)를 달리 설명해 주기도 한다. 내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삼재는 시간(時間)과 공간(空間)과 질량(質量)이다.

과학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存在)를 결정해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 한 사람의 운명(運命)을 결정해 준다.

어느 날(日), 어느 시(時), 어디에서(場所), 어떤 사람(人)이 태어났는지 연월일시(年月日時)가 중요하고 그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월일시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시간과 연계(連繫)되어 있기 때문이다. 밀접한 관계(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경이나 서울이나 북경이나에 따라 일시(日時)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동경시(東京時)를 쓰고 있다. 서울시는 동경시보다 30분 늦게 간다. 때문에 정확한 서울시를 쓰려면 현재의 시간에서 30분 늦추어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썸머타임(summertime)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했다면 1시간 30분의 오차(誤差)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과 질량의 문제는 사람에게 국한(局限)되는 것만은 아니다. 모든 존재(存在)가 그렇다. 매사(每事)가 그렇고 우리들의 일상(日常)이 그렇다.

가령 수돗물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삼재(三才)에 해당하는 시간과 공간과 질량은 수도꼭지의 크기(空間)와 그 크기에 따라 흘러나오는 물의 양(質量)과 그 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時間)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 결정해주는 것이다. 매사가 그렇고 일상이 그렇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일에 투입되는 사람이나 장비나 자재 같은 공간(空

間)의 문제와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時間)의 문제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 즉 질량(質量)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철학(哲學)의 세계에서는 삼재(三才)를 천지인(天地人)으로 보고 있고 과학(科學)의 세계에서는 시공질량(時空質量)으로 보고 있다. 일상을 살펴보면 철학의 관점(觀點)에서 들여다보는 삼재도 소중하고 과학의 관점(觀點)에서 들여다보는 삼재도 소중하다.

우리는 '철학의 눈(眼目)'과 '과학의 눈(眼目)'을 동시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일은 하고 싶을 때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고 싶을 때 해야 능률이 오르고 신명이 난다. 매사에 신명이 나도록 철학과 과학 두 관점(觀點)에서 세우기를 바라보고 삼재(三才)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이규임

자유기고

평화사랑 콘서트 후기

지난 6월2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새터민 대안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사랑 콘서트가 열렸다.

문재숙 인간문화재와 두 딸 이슬기(KBS 국악 관현악단원) 이하늬(2006년 미스코리아) 등이 출연하여 국악음악회를 마련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기

탁한 훈훈한 콘서트였다.

문재숙 인간문화재는 가야금 명연주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서 현재 이화여대 국악교수로 재직 중이다.

흔히 콘서트하면 주로 서양악기나 가수 등이 출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우리고유 악기 가야금으로 그것도 우리민족인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는 새로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두 딸과 함께 한 가야금 병창은 모든 이로 하여금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으며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남겨 주었다.

마무리로 문재숙의 오빠 문희상 국회의원과 동생 문희국 님 등 모든 가족이 무대에 모여 토키타를 치며 그 옛날 풍요를 흥겹게 부를 땀 어는내 예술의 전당 안모두는 하나가 되어 어우러졌으며 그 모습을 보며 제이 제삼의 문 교수님이나 우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맛 나는 밝은 사회 창랑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미래 한국의 청소년 비전을 위해 희망의 주춧돌을 놓으시는 북경기신문사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의 프로젝트가 훌륭히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김기호

탐방 @ 유밀원 목장

황무지 개간 어린 시절 꿈 목장경영

유밀원 목장(대표 조성달)은 산과 논에는 벼로 녹음이 짙은 조용한 농촌마을로 막걸리와 갈비가 유명한 고장 이등면 연곡리에 자리잡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꿈이 목장하는 것이라 선생님께서 별명을 카우보이라고 하셨다. 짚우(糶), 풀우(糶), 동산원(園), 유밀원 목장이라고 한다.

유밀원목장은 1981년 쫓소 2마리로 분가해 도지를 얻어 간이우사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조사료를 조달하면서 어렵게 시작해 슬하에 외아들을 두었다.

건국우유로 남유하다 회사가 이전하여 현재 진흥농가로 착유소 40두, 육성우 34두 등 총74두를 사육하며 쿼터량 1톤200L 규모이며 TMR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유밀원 목장은 전업농가로 우육 실 수 있는 비결을 근면성실함과 최신기계시설로 환경개선 덕이라고 한다.

1300평 우사에 축사분뇨는 로더로 밀어 자동으로 삼장에 모이게 되며 운동장에는 여러대의 선곡기와 브러쉬를 설치해

최신기계시설로 축사환경개선 수익증대

패적인 환경에서 소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사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낙농보조사업으로 착유시설을 지원 받아 헤링본 2열5두 최신식 착유시설로 HACCP 공법(축산물위생 안전관리강화)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인 우유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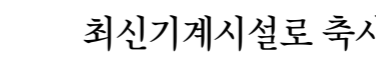
유밀원 목장 부부는 시설투자비용이 한 것은 노동력 절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낙농후계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작사량이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목장경영의 지역 낙농발전에 한몫을 토포하고 있다.

조성달(54) 대표는 현재 포천시 검정회장과 종축개발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작년에는 한경대학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마치고 올해는 쫓소선

형심사 교육을 이수하여 목장에 적용해 제1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주니어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했다.

부인 이선자 이동지부장도 우성사료에서 주관하는 낙농대학과 한경대학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중이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치즈공방을 적극 활용하여 원유로 치즈 만드는 법을 배워 여성분과에서 우유요리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름이 주부명예기자인 이사 dhdn6523@harmnet



이름이 주부명예기자인 이사

dhdn6523@harmnet

